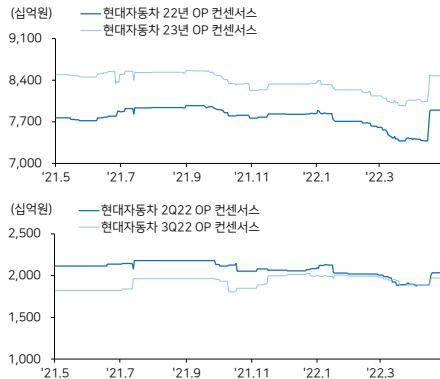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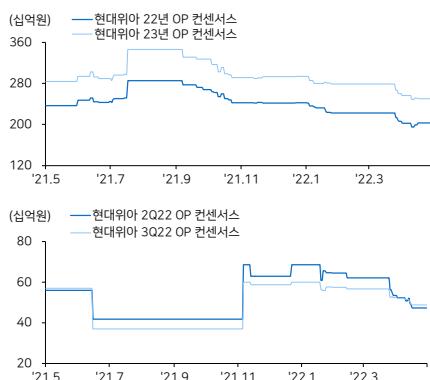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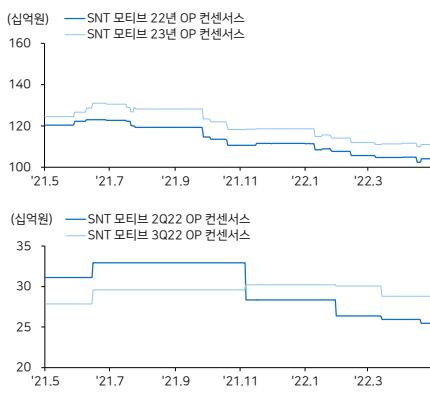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글로벌 자동차 시장 옆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아이뉴스투데이)

중국 완성차사들의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점식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중. 중국은 2021년 yoy 3배 늘어난 총 31만대의 NEV (BEV/PHEV)를 수출했는데, 총 수출량인 201.5만대의 15% 이상이 BEV/PHEV로 구성된 것.

<https://bit.ly/3m2ZNwR>

현대차·기아 SUV 덕... 북미시장서 절나가는 현대위아 (디지털타임스)

현대차·기아가 미국 공장서 SUV 생산량을 늘리면서 현대위아의 서문구동 부품을 중심으로 판매 호조를 보였고, 북미지역 차량 판매가 늘어나면서 멕시코법인의 가동률이 올라가 1Q22 멕시코법인 흑자전환에 성공함.

<https://bit.ly/3Q48RdR>

Foxconn predicts more stable supply chain in the second half of 2022 (Reuters)

6월 1일 상해 봉쇄가 일부 해제됨에 따라 폭스콘은 하반기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중'이라고 언급함. 폭스콘은 EV를 생산해 2025년까지 글로벌 MS 5% 달성을 목표, 전기차 반도체 생산능력도 확대를 계획 중.

<https://reut.rs/3N9imUy>

Tesla receives 4680 battery cell samples from Panasonic ahead of mass production (electrek)

Tesla는 4680 배터리의 양산에 앞서 파나소닉으로부터 배터리셀 생성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짐. 파나소닉은 4680 셀 양산을 위해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 배터리공장을 계획 중이며, 향후 사이버트럭을 포함한 모든 Tesla 모델에 공급될 것으로 알려짐.

<https://bit.ly/3N9j7P>

현대차·기아, 해외특허 2년만에 44% 급증 (서울경제)

올 1분기 말 기준 현대차·기아의 국내외 특허 보유 건수는 46,544건으로 집계됨. 해외 특허는 2019년 12,458건에서 올해 1분기까지 43.8% 증가한 17,914건으로 파악됨. 동기간 해외특허 비중은 46%에서 57.1%로 상승함

<https://bit.ly/3aaMDuF>

현대차, '수소 고속버스' 양산 초기기 (전자신문)

현대차가 수소로 달리는 고속버스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준비에 착수. 대형 트럭에 이어 버스까지 수소상용차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 2028년까지 모든 상용차를 FCEV/BEV로만 구성하려는 현대차 수소 대중화 전략에 속도가 붙을 전망.

<https://bit.ly/38WjRd>

GM to cut prices on EV Chevrolet Bolt up to 18 percent (Reuters)

GM은 배터리 리콜 이후 지난 6개월간 판매가 중지됐던 전기차 Chevrolet Bolt의 가격을 트림별로 최대 18%까지 인하할 계획. 1Q22 GM은 미국에서 총 358대의 Bolt EV를 판매, 이는 2021년 9,025대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

<https://reut.rs/3M9Cds0>

Electric car price war is coming, says Ford CEO (electrek)

Ford CEO Jim Farley는 \$25,000 EV 모델들의 가격 경쟁 전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언급함. 현재 낮은 재고와 초과수요로 전기차에 높은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있으나, 향후 전기차 제조비는 하락하여 가격 경쟁을 예상.

<https://bit.ly/3N93VXC>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